

최근 고유가의 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

朴馥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bypark@kiep.go.kr

5월 중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 발표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의 고유가는 2000년 이후 변화된 국제원유 시장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OPEC의 목표유가 밴드제 시행, 중동지역내 지정학적 위협의 상시화, 세계적 원유수요의 급증이 변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앞으로 국제유가는 투기적 거품이 해소되면서 다소 하락하겠지만, 3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머리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의 최근 월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5월 13일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 사상 최고치를 몇 번이나 갱신하였다. 마침내 6월 1일에는 WTI 7월 인도분 선물가격이 배럴당 42.33달러에 이르렀다. 6월 3일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이 7월 1일부터 생산쿼터를 기존의 2,3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증가된 2,550만 배럴로 늘리기로 합의한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6월 초순 현재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WTI가 42달러, 브렌트(Brent)유가 39달러, 두바이(Dubai)유가 36달러 내외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비교적 단기간내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였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국제원유시장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

었다. 그리고 아직도 국제원유시장을 둘러싼 불안정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의 목적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의 요인을 정리하고 향후 국제유가의 추세를 전망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고에서는 국제원유시장을 둘러싼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이 우연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중첩되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2000년 이후 국제원유시장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련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2. 국제유가의 장기 추세

우선 최근 국제유가의 수준과 추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 이후 연평균 국제유가 추이를 나타낸 <그림 1>은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의 장기적 추세의 관점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972년까지 배럴당 약 2달러에 머물렀던 국제유가는 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1974년에는 10달러 내외가 되어 5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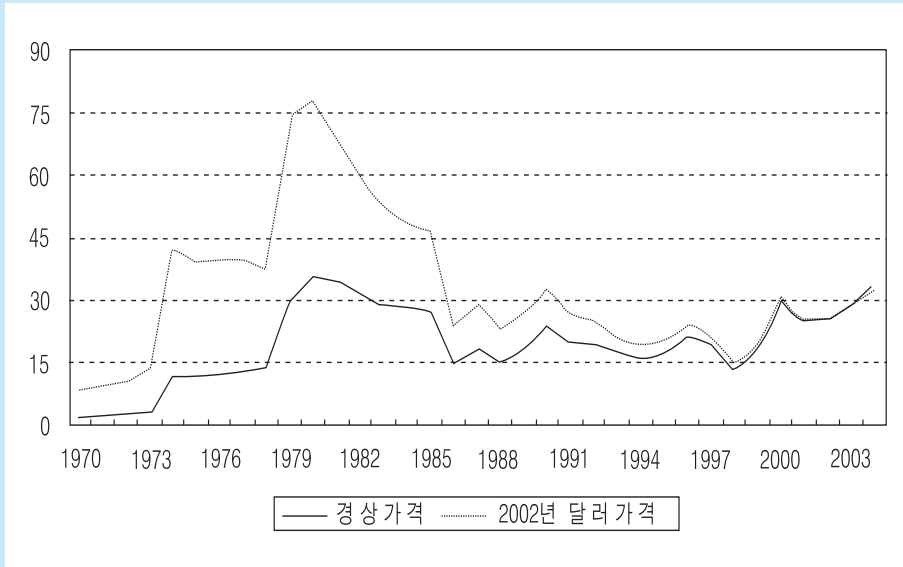
그리고 1979년 2차 오일쇼크 때에는 13달러에서 3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런 두 차례의 오일쇼크 후 국제유가는 1980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에는 15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그 후 1차 걸프전쟁이 있었던 1990년을 제외하면 1999년까지 약 15년간 국제유가는 15~20달러대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결국 1973~85년이 고유가시대였다면 1986~99년은 상대적 저유가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제유가는 연평균 29달러로 1년 전에 비해 약 10달러나 상승하였다. 그 후에도 국제유가는 계속 25달러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2004년에는 현재까지 연평균 33달러를 웃돌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5년간 국제유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현재까지의 연평균 유가는 국제유가가 정점에 이른 1981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가상승을 1970년대의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오일쇼크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첫째, 국제유가의 상승률이 과거 쇼크에 비해 훨씬 작다. 과거 오일쇼크 때에는 국제유가가 연간 3~5배 상승하였지만, 현재까지의 연평균 유가로 볼 때 2004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8%에 불과하며 최근

〈그림 1〉 국제유가(브렌트유)의 장기적 추이(1970~2004년)

(단위: 달러/배럴)



자료: BP(2003),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페트로넷 데이터 베이스(www.petronet.co.kr)

저점인 2001년과 비교해도 3년간 36% 증가 한데 불과하다. 둘째, 명목가격이 아닌 불변달러가격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국제유가는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2년 달러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2004년 현재 국제유가는 약 32달러인데, 이는 1차 오일쇼크 때의 40달러보다 낮으며, 2차 오일쇼크 당시 70달러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셋째,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실질적인 공급차질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오일쇼크와는 차이가 있다.¹⁾ 2003년 5월 이라크전 종결 이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국지적인 테러나 분쟁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 1차 오일 쇼크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아랍권이 석유무기화를 선언하고 생산을 25% 감축하고 비우호국에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함으로써 야기되었다. 그 결과 세계 원유시장에 1일 약 430만 배럴의 공급차질이 빚어졌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야기된 2차 오일쇼크 때에도 이란의 석유수출 전면 중단과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1일 약 560만 배럴의 공급차질이 발생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과거의 오일쇼크와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다만 장기적 추세로 볼 때 2000년 이후 국제유가는 그 이전 15년 동안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며 상승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이제 상대적 고유가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3. 고유가의 구조적 원인

국제유가의 장기적 추세가 2000년 이후 국제원유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면, 국제유가와 세계경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2>는 그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우측 축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분기별 성장률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 축을 기준으로 분기평균 국제유가(WTI 기준)가 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국제유가는 세계경기과 매우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세계경기가 상승하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가 하강하면 원유 수요가 감소하여 국제유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²⁾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국제유가와 경제

성장률간의 관계가 2000년 2사분기를 기준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수요를 좌우하는 세계경기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크기가 그 이전 시기와 달라진 것이다. 즉 세계경기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과거 만큼 하락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00년 4사분기 OECD 경제성장률은 3% 내외였는데, 과거 같으면 이 경우 국제유가는 20달러 내외가 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30달러를 상회하였다. 경제성장률이 0%에 머문 2001년 4사분기에도 국제유가는 20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요약하면 결국 경제성장률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2000년 이후 국제유가는 그 이전에 비해 배럴당 약 10~13달러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유가의 구조적인 상승을 낳은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할 것이다.

가. OPEC의 영향력 증대와 선제적 감산

첫 번째 원인은 OPEC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1986년 이후 회원국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비OPEC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증대되면서 약화되었던 석유시장에 대한 OPEC의 영

2) 경기와 국제유가 사이의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오일쇼크나 전쟁과 같은 큰 외생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월이나 분기 단위의 시계열자료에서 발견되는데, 외생적 충격까지를 포함한 장기 시계열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기에 세계경기는 반대로 침체에 빠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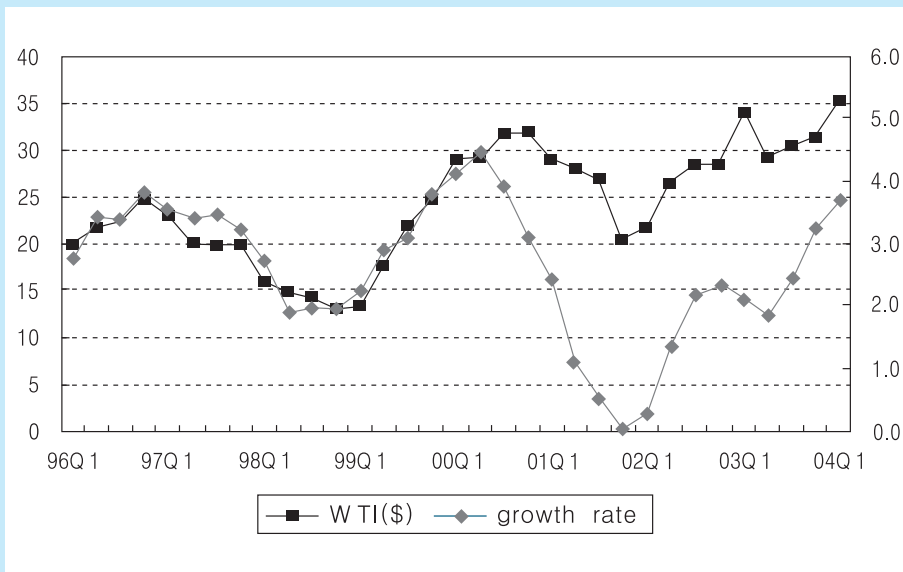
향력이 2000년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1998년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면서 OPEC은 강경파 주도로 선회되었다. 그 결과 OPEC은 2000년부터 소위 '목표유가 밴드제'를 실시하였는데, 유가의 변동에 따라 생산쿼터를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배럴당 22~28달러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올해에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배경으로 산유국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해 목표 밴드를 28~32달러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OPEC 내에서 제기되었다. 목표 밴드의 상향이 공식

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회원국들이 상향된 밴드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이라크전 이후 고조된 아랍권의 반미 정서와 OPEC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간의 관계 악화도 OPEC의 결속력을 강화시킨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OPEC은 국제유가가 실제로 하락하지 않더라도 국제유가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쿼터를 축소하는 선제적 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표 1>은

<그림 2> 세계경기와 국제유가의 관계(1996-2004년)

(단위: 달러/배럴, %)



자료: 페트로넷 데이터베이스(www.petronet.co.kr)
Global Insight 데이터베이스(www.globalinsight.com)

2000년 이후 OPEC의 쿼터 조정내역을 정리한 것인데, 2003년 5월 이라크전 종료 이후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쿼터를 축소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올해 2월의 100만 배럴 축소는 세계경기 상승으로 원유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원유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기습적으로 감산을 결정한 경우이다. 그리고 그 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OPEC은 3월 말 총회에서 감산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최근까지의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한 중요

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0년 이후 나타난 OPEC의 결속력 강화, 목표유가 밴드제의 시행, 선제적 감산조치와 같은 OPEC의 구조적 변화가 고유가시대를 초래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나. 지정학적 위험의 상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9.11

〈표 1〉 OPEC의 쿼터 조정 실시 내역

시 기	국제유가수준 (WTI)	합의일시	쿼터 조정폭	OPEC 총쿼터
2000년 경기상승기 (증산)	28\$ ⇒ 32\$	2000. 03. 28	+170.0	2,469
		2000. 06. 21	+70.8	2,540
		2000. 09. 11	+80.0	2,620
		2000. 10. 30	+50.0	2,670
2001년 경기하강기 (감산)	32\$ ⇒ 20\$	2001. 01. 17	-150.0	2,520
		2001. 03. 16	-100.0	2,420
		2001. 07. 25	-100.0	2,320
		2001. 12. 28	-150.0	2,170
이라크전 직전 (증산)	28\$ ⇒ 34\$	2002. 12. 12	+130.0	2,300
		2003. 01. 12	+150.0	2,450
이라크전 이후 (감산)	29\$ ⇒ 35\$	2003. 04. 24	+90.0*	2,540
		2003. 09. 24	-90.0	2,450
		2004. 02. 10	-100.0	2,350
2004년 유가 급등기 (증산)	35\$ ⇒ 42\$	2004. 06. 03	+200.0**	2,550

주: * 쿼터는 90만 배럴 증산했으나 쿼터 준수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감산을 유도함.

** 8월 1일 이후 50만 배럴을 추가로 증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자료: O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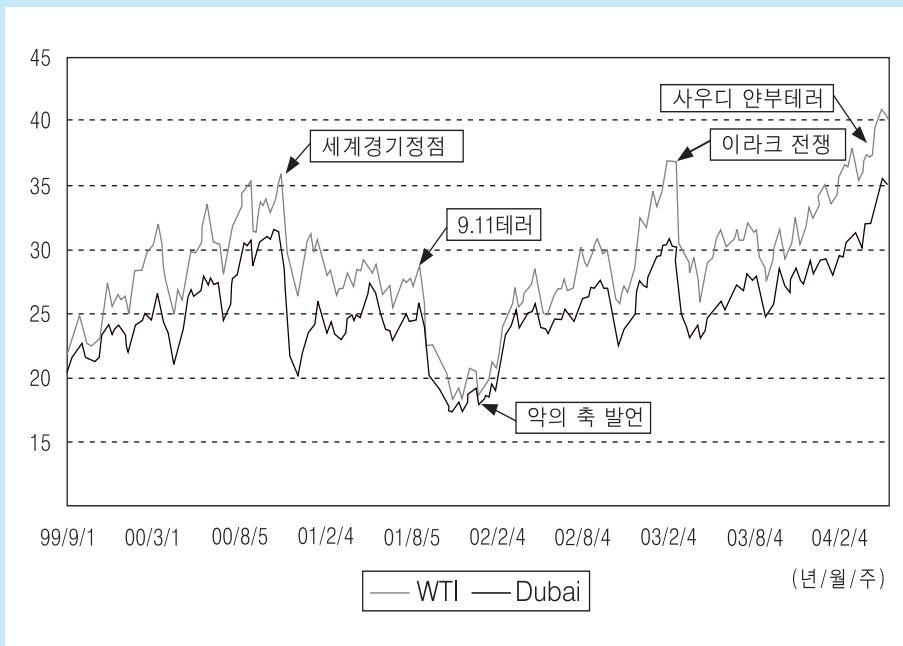
사태 이후 세계 최대 산유지인 중동에서 전쟁과 테러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석유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9.11 사태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석유공급 차질보다는 세계경기 급냉의 우려를 야기해 국제유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002년 초에 미국이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공격 가능성을 암시한 이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본격적으로 고조되

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제유가에는 5달러 내외로 추정되는 소위 ‘전쟁 프리미엄’이라는 위험 프리미엄이 부가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이라크 전쟁의 종결로 ‘전쟁 프리미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라크 내에 치안상황이 계속 불안하고 유전이나 송유관에 대한 테러 공격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이 나타났다. 이라크에서의 석유공급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정권 이양을 앞두고 이라크내 종파간 분쟁이 내전

〈그림 3〉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국제유가의 변동(1999-2004년)

(단위: 달러/배럴)



자료: 페트로넷 데이터 베이스(www.petronet.co.kr)

의 양상으로 발전되면서 이라크의 원유 생산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2003년 이후 세계 원유시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지정학적 위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국인데 전통적으로 왕정을 유지하면서 정치구조와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03년 5월 리야드의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35명의 사망자를 낸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사우디의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왕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기존 정치집단, 정치적 자유와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 이슬람의 종교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테러는 그 동안 국제원유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5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도시 얀부(Yanbu)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 사건은 미국계 석유 메이저인 엑슨모빌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 SABIC의 합작회사에 테러범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하여 5명의 외국인 사망자와 20여 명의 중상자를 낳은 사건이다. 이 테러는 석유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알 카에다 조직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원유시장에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 중인 석유메이저를 위협하여 석유생산을 위축시킴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원유시장에 공급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사건이었다. 5월 29일 또 다른 석유화학단지 호바르(Khobar)에서 발생한 테러와 인질극 역시 같은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은 곧 국제유가를 42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2001년 이후 계속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은 이제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많은 중동국가가 정권교체에 직면하거나 세계화시대에 대외개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 세계적 원유수요의 증가

최근 고유가를 초래한 세 번째 원인은 예상 외의 세계적 원유수요 증가이다. 사실 최근의 원유수요 증가가 단순히 주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의 대규모 원유 소비국 외에 중국과 인도라는 새

로운 대규모 원유소비국의 소비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증가율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전체 원유소비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0.26%와 0.39%의 매우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많은 석유전문가는 장기적으로도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이 0.5~1.0%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03년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은 1.9%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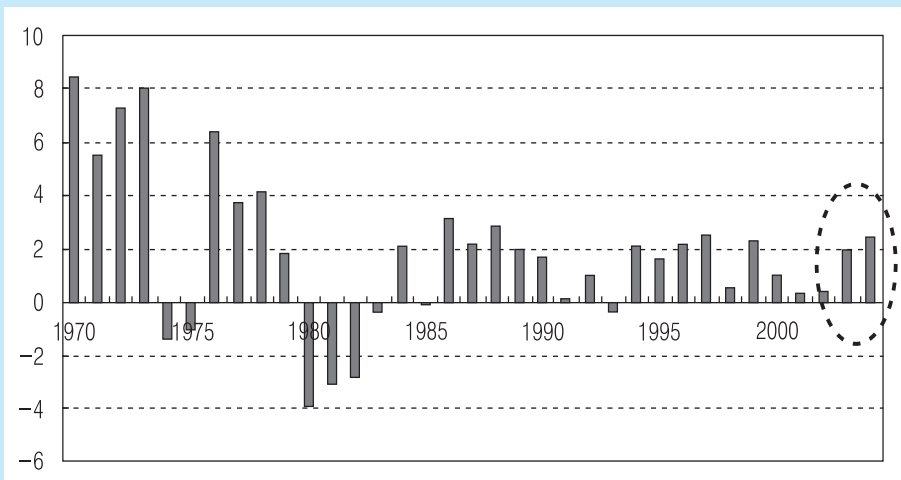
이러한 높은 증가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원유수요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 2003년 중국의 원유소비량은 1일 550만 배럴

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전체 수요량의 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단일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2003년에 9.1%의 고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원유소비 증가율은 11%였으며, 세계 전체 소비 증가분 중 1/3 이상이 중국의 소비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원유소비 급증 추세는 200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04년 중국의 원유소비량이 1일 620만 배럴로 전년도에 비해 13%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계 전체 원유소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4년 5월 현재 IEA는 올해 세계 원유소비량을 전년도보다 1일 190만 배

〈그림 4〉 세계 원유소비 증가율 추이(1970~2004년)

(단위: %)



럴 증가한 8,040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이 증가폭은 198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IEA는 당초 증가폭을 100만 배럴로 예상했지만 그 후 네 차례나 예상치를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원유소비 증가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새로운 대규모 원유소비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산업화 초기의 원유소비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 이 나라들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은 모두 세계 원유소비가 당분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원유소비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국제유가와 원유소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소비를 억제하는 기제가 거의 사라졌으며, 현재 수준의 고유가가 강력한 원유소비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향후 전망

2001년 이후 국제적인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헤지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기관들이 원유를 단기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가 많아졌다. 그 결과 국제원유시장으로 많은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원유의 금융상품화는 국제원유시장이 다른 금융자산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갖게 하였다. 예를 들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수급조건과 같은 펀더멘털한 요인 외에 뉴스가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졌다. 또한 현재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보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테러가 실제 원유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전조로 인식되어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국제원유시장 환경에서는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망이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 저점인 2003년 이라크전 종료 이후 지난 1년간 국제유가는 60%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 상승분에는 OPEC의 쿼터 축소, 세계적인 원유수요 증가와 같은 수급상황의 변화나 달러화 가치 하락이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와 같은 합리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투기적 성격의 버블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OPEC의 쿼터 확대와 같은 유가하락의 계기가 마련되면 이런 버블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고유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요인들은 단기간내에 사라지기 어려운 것들이다. OPEC의 결속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완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목표유가 밴드를 묵시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치안이나 정국 상황 역시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의 경기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7% 이상의 고성장을 당분간 계속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중국의 산업화와 자동차의 보급(motorization) 등이 가속화되면서 원

유 수요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산유국들의 원유공급 능력은 거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유가를 배경으로 산유국들이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원유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이후 국제원유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할 때 국제유가(WTI 기준)는 향후 2~3년 동안 연평균 배럴당 30~3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박복영, 2004, 3.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최근 유가상승 요인 분석」, *오늘의 세계경제* 04-0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문배, 2004, 5. 「5월 원유시장 동향과 전망」, 『에너지포커스』, 에너지경제연구원.
페트로넷 데이터베이스(www.petronet.co.kr).
한국석유공사, 2004, 6.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한국석유공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3. 「국제유

가 전망과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각호.
BP, 2003,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conomist, Various issues.
Global Insight Database(www.globalinsight.com).
IEA, 2004, 5, *Monthly Oil Report*, Various issues.
Oxford Analytica, Various issues.